
테 마 진 단

◆ IMF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 10년 평가

양성문 팀장

1. 머리말

1997년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외환위기 당시의 보험산업과 IMF 구제금융 이후 보험산업의 변화 과정을 주요 지표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국내 보험산업을 평가해 보고자 함.

- ☐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 ☐ 보험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금융개혁의 와중에서 수많은 보험회사가 퇴출되었으나 외국 보험회사를 필두로 한 신규 보험회사의 진입이 활발해졌으며, 상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시장구조도 재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 현재 보험산업은 외형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익성이나 경영 효율성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음.
- ☐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보험산업의 성장 과정을 주요 지표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국내 보험산업을 평가해 보고자 함.

2.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보험산업 평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의 보험산업 변화과정을 보험산업 구조조정, 겸업화, 보험료 성장 및 규모, 경영효율성 및 자산운용, 상품포트폴리오, 모집조직, 시장경쟁의 다변화,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산업 글로벌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

가. 보험산업 구조조정

- ☐ 외환위기로 초래된 보험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부실보험회사의 퇴출을 비롯한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임.
- 외환위기로 촉발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은 1998년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와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행정조치를 통해 약 2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1차적으로 1998년 6월 지급여력 및 향후 정상적인 경영가능성을 기준으로 18개 생보사, 2개 손보사, 2개 보증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요구하고 8월 경영정상화 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거 4개 부실생보사가 영업정지 후 계약이 이전되는 행정조치를 당함.

<표 1> 보험산업 구조조정 현황

	1994	IMF 1997	구조조정			
			1998(1차)		1999~2000(2차)	
생명 보험	33	33	29	퇴출4사 (고려, 국제, 태양, BYC)	22	계약이전(두원, 현대, 동아, 국민, 한덕), 합병(조선, 태평양, 한덕)
손해 보험	16	17	16	합병2사(보증보험: 대한보증+한국보증 →서울보증)	16	-
합계	49	50	45	경영개선명령: 16개사	38	-

- ☐ 1998년의 4개 생보사 퇴출에 이어 부실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으로 경영부실이 드러난 대한생명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함.
- 대한생명은 자산부채 실사결과에 따라 대규모 경영부실이 밝혀지면서 국영보험회사화되고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7개사가 추가적으로 인수합병 됨.
- ☐ 계약이전과 인수합병, 그리고 국영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은 기존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대외신인도는 크게 제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사들도 국내시장에 직접투자나 합작투자 또는 M&A방식으로 적극 참여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도는 크게 향상되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의 회수는 아직 저조한 실적임.
-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험산업에 지원된 총 공적자금은 19조 3,827억원이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2조 4,000억원에 불과하여 회수실적이 미미한 수준임.
- 다만 향후 대한생명(정부지분 49%) 지분매각이나 서울보증보험(정부지분 93.85%)의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자금의 추가 회수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나. 보험산업 겸업화

-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크게 진전되었음.
- 1980년대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와 전자,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업은행들이 본연의 상품인 예금, 대출 및 결제 업무 이외에 증권, 보험 등과 연계된 상품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취급하거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주변업무에 진출하게 되었음.
-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의 증권업 겸영은 물론, 은행이 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보험회사가 은행의 지분에 참가하여 업무를 제휴하는 등으로 은행과 보험의 겸영이 확대되어 은행과 보험의 겸영형태인 방카슈랑스가 확산됨.
- 국내에서도 보험회사는 신탁업,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가능해졌으며, 2003년 8월 금융소비자의 편익제고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었으며, 단계별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확대되고 있음.
- 4단계 방카슈랑스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핵심종목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향후 시행시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임.

<표 2> 방카슈랑스 일정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03년 9월	2005년 4월	2006년 10월	2008년 4월
생명보험	개인저축성, 신용생명보험	순수보장성 (특약부 제외)	환급형상품 (특약부 제외)	개인보장성보험 (종신/CI 등)
손해보험	개인연금, 장기 저축성, 주택화 재, 개인상해	순수보장성 (특약부 제외)	환급형상품 (특약부 제외)	장기보장성보험, 개인자동차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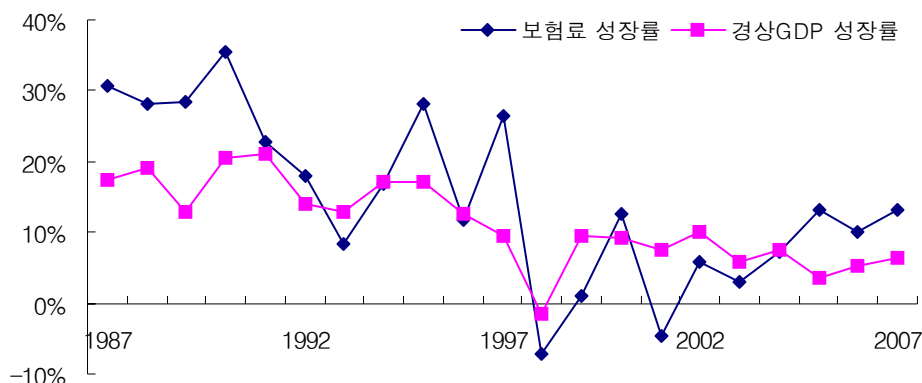
-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변액보험, 유니버설보험과 같은 선진상품이 등장하고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연계시킨 신상품이 출현하였으며, 여러 상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슈퍼보험이 출현하는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이 개발되었음.
- 2006년부터 “취득권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설계사도 펀드의 취득을 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생·손보사간 설계사의 교차판매가 2008년 8월부터 허용이 예정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이 허용될 예정임.
- 금번 보험업법 개정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는 향후 반드시 허용되어 공과금 납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령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점업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우리 보험제도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나 금융권 및 보험회사간의 경쟁심화로 경쟁력이 약한 보험회사의 경우 경영상의 애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다. 보험료 성장 및 규모

-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FY2007 기준으로 108조 7천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FY1997 수입보험료 65조 3천억원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보일 전망이다.

- 외환위기 이전 국내 보험산업은 20%대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이다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성장률이 감소하였음.
- 특히, IMF 이후 보험료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경상 GDP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2005년 이후부터 변액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GD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1> 보험료성장률 추이



-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입보험료 비중, 즉 보험침투도는 FY1997 13.3%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FY2005년 이후에야 비로소 증가세로 반전됨.
- 1997년 보험침투도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당시 생보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납 고금리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결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28.3%나 증가하여 생명보험 침투도가 10%에 달하였기 때문임.
- 2005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보험침투도는 2007년에는 12.3%에 이를 전망이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표 3> 우리 나라 보험침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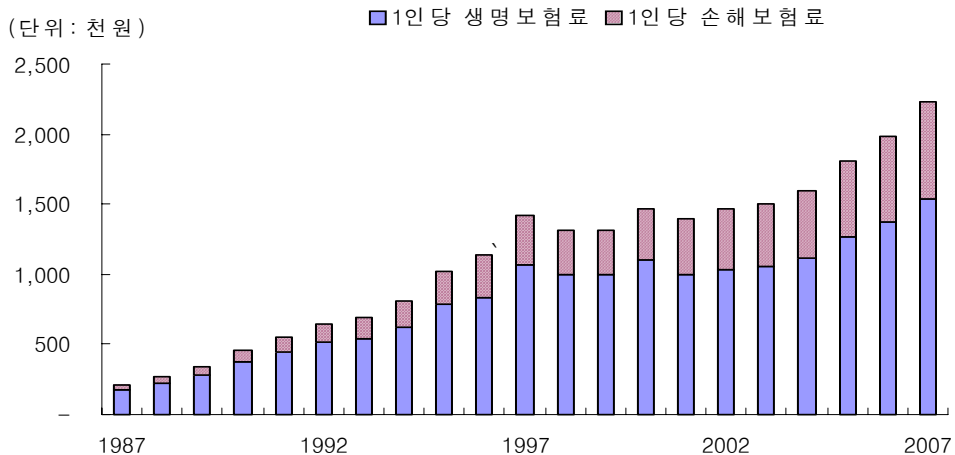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1987	1992	1997	2000	2005	2007
생명보험 침투도	6.3	8.8	10.0	9.0	7.6	8.4
손해보험 침투도	1.3	2.2	3.3	2.9	3.2	3.7
합 계	7.6	11.0	13.1	11.9	10.8	12.1

주 : 2007년은 본원 추정치임.

- 1인당 지출보험료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IMF 직후인 FY1998에는 약 131만원으로 감소한 후 다시 상승하여 FY2007에는 22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 IMF 위기 이후 손해보험의 지출보험료가 생명보험에 비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자동차보급 확대, 차량 고급화 등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꾸준한 성장과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에 기인함.
- 다만 2005년에는 변액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라 생명보험의 지출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2> 우리 나라 보험밀도 추이



주 : 2007년은 본원 추정치임.

□ 세계보험시장에서의 위상변화

-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기준 국내 보험산업의 세계에서의 위상은 다음과 같음.
 - 수입보험료 규모 기준 : 세계 6위
 - 보험침투도(GDP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기준 : 세계 2위
 - 보험밀도(국민 1인당 지출보험료) 기준 : 18위

<표 4> 한국보험시장의 위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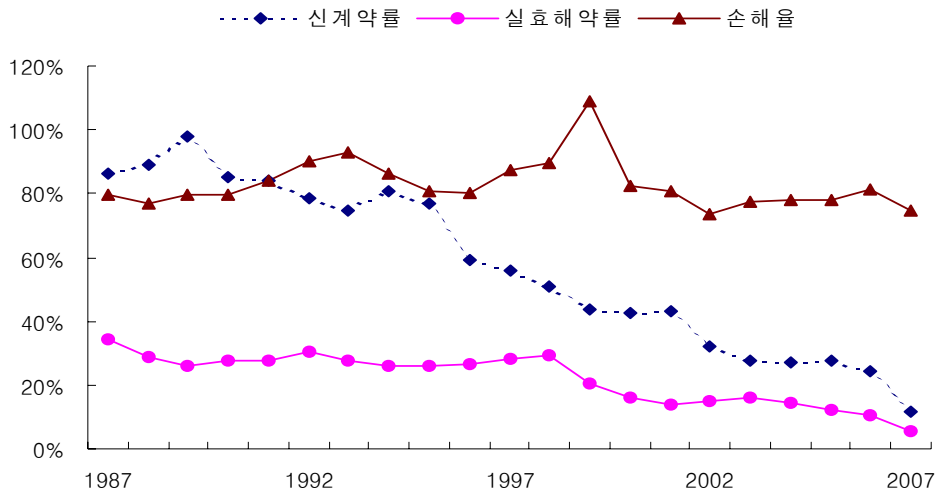
구 분	1987	1990	1997	2000	2006
수입보험료 순위	11	9	6	7	7
보험침투도 순위	4	1	2	3	4
보험밀도 순위	22	18	18	18	21
세계시장 점유율	1.04%	2.02%	2.66%	2.39%	2.72%

- 2006년 기준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입보험료 7위, 보험침투도 4위, 보험밀도는 21위를 차지하고 있음. 다만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72%로 1997년 2.66%보다 소폭 증가함.

라. 경영효율성 및 자산운용

- IMF 외환위기 이후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언더라이팅 강화 및 계약유지관리에 기인하여 경영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신계약률이 감소하며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IMF 이후 경영개선의 노력으로 효력상실해약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1999년(보증사 손해율 462% 때문에 급상승)을 제외하고는 손해율이 비교적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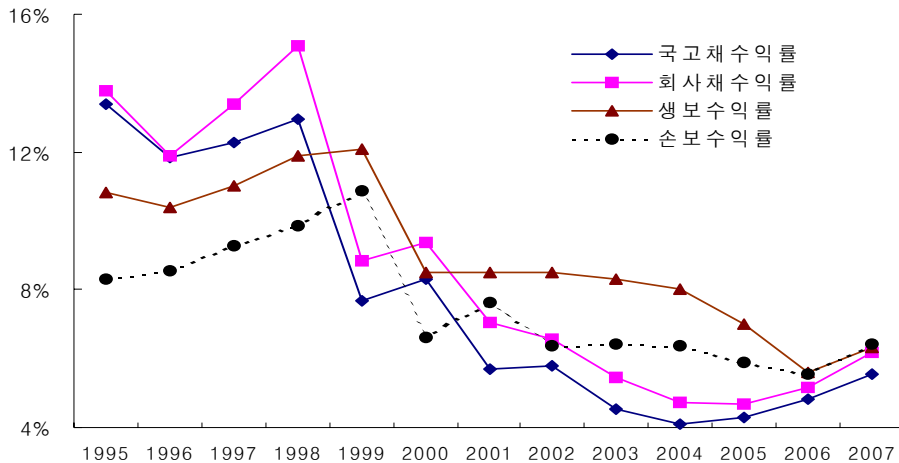
<그림 3> 외환위기 전후의 생·손보사 경영효율성



주 : 2007년 실적은 2007년 9월말 기준임

-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면, 자산운용수익률은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안전한 자산을 통한 위험회피, 보수적 자산운용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IMF 외환위기 전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채권금리 수준을 하회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채권금리 수준을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은 <그림 4>에서 보듯이 금리추세와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금리동향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의 변화가 예상됨.
- 2007년의 경우 금리상승 추세 지속 및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4> 외환위기 전후의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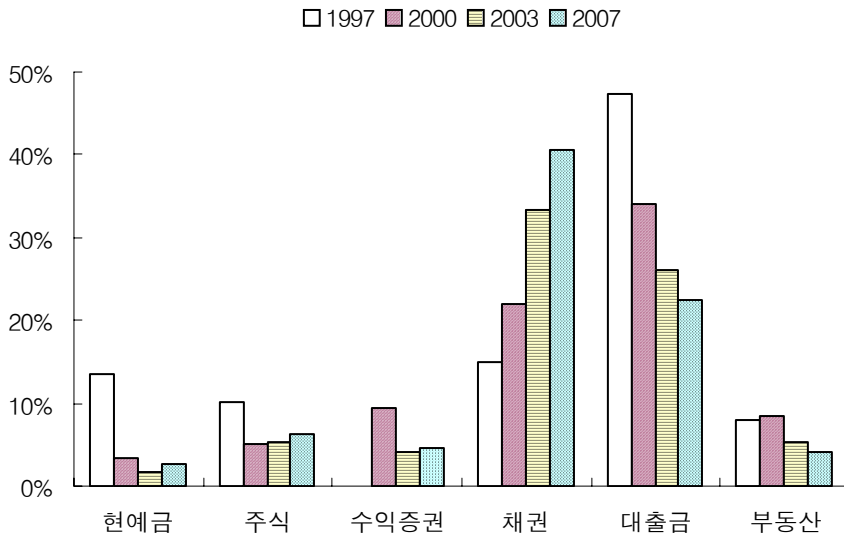


주 : 2007년 실적은 2007년 9월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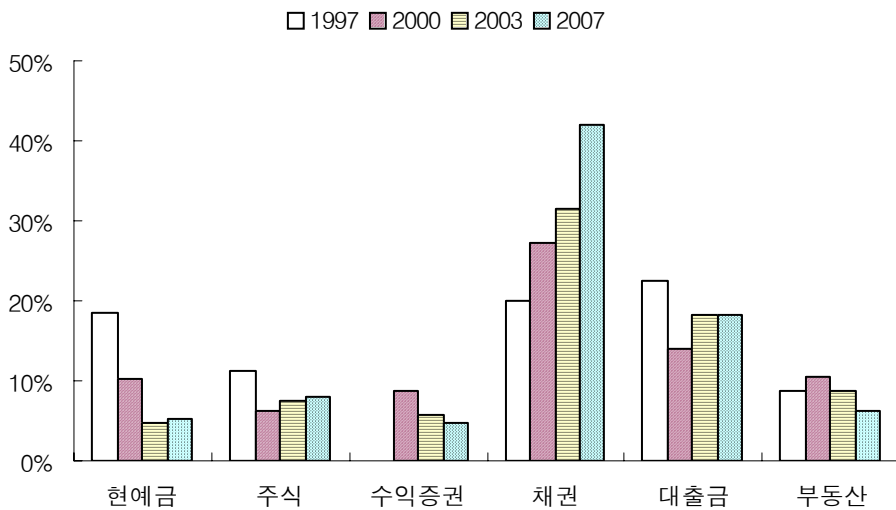
o IMF 전후로 자산운용 패턴에 큰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생·손보사 모두 채권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예금이나 대출금 비중을 축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부도나 가계파산 증가 때문에 대출비중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고, 보험금지급률이 감소함에 따라 현·예금의 비중을 축소한 것에 기인함.
- 주식비중도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7년의 경우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주식비중을 다소 확대하였음.
- 전반적으로 볼 때 IMF이후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패턴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외환위기 이후의 생보사 자산운용포트폴리오 추이



<그림 6> 외환위기 이후의 손보사 자산운용포트폴리오 추이



마. 상품포트폴리오의 변화

□ IMF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상품포트폴리오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망보험 및 변액보험의 비중 증가임.

- 사망보험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와 보험회사의 판매 확대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비중이 42.1%에 이르고 있음.
- 변액보험은 2001년에 판매가 시작된 후 부진한 실적을 보이다가 2005년부터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단체보험은 일반단체보험 가입 감소와 퇴직보험의 신규가입 저조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최근 들어 보장성보험의 성장률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소득 확보 목적으로 연금 및 변액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5> 외환위기 이후의 보험산업 상품 포트폴리오

(단위: %)

구 분		1997	2000	2003	2005	2007. 9
생명 보험	생존보험	29.7	21.0	23.0	19.5	19.6
	사망보험	13.6	24.3	45.5	44.1	42.1
	생사혼합보험	24.6	31.9	18.8	11.8	9.4
	변액보험	-	-	1.5	13.6	23.0
	단체보험	32.1	22.8	11.3	10.9	5.9
손해 보험	자동차보험	37.8	38.8	37.2	34.2	32.8
	일반보험	10.1	10.9	12.7	12.5	11.6
	장기손해보험	44.2	46.7	45.7	49.5	52.7
	보증보험	7.9	3.6	4.4	3.9	3.0

○ 손해보험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장기손해보험의 비중 증가와 자동차보험의

상대적인 비중 감소임.

- 장기손해보험은 1990년 후반 이후 고성장세를 지속하여 손해보험의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이는 소비자들의 노후보장 수요(건강, 저축 등)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판매 확대에 기인하며, 향후에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는 보험회사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성상품 보다는 보장성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저축성의 경우에도 금리연동형상품 위주의 판매전략을 취함으로써 금리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
- 다만 아직도 기존의 확정고금리상품 때문에 이차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즉, 금리연동형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비차익의 꾸준한 확보 등이 필요할 것임.

<표 6> 생명보험 이원별 손익추이

(단위: 억원)

구 분	1997	2000	2002	2004	2006
사차손익	5,591	7,272	13,060	9,766	9,516
이차손익	-11,090	-29,973	-7,078	3,837	-4,780
비차손익	-553	14,036	31,681	19,013	18,812
당기순이익	-8,454	-6,085	15,874	20,972	19,475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년호.

-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 손보사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손보상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하향 안정화가 손익에 가장 큰 기여를 했음.
- 손해율 하락은 보험영업의 적자 폭을 축소시킴으로써 손보사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1997년에는 91.6%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81.5%로 크게 하락함으로써 손보사 손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당분간 장기손해보험의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들의 상해, 질병,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수요와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7> 장기/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7	2000	2002	2004	2006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91.6	90.9	82.4	86.4	81.5
자동차보험 손해율	64.1	73.2	76.7	76.6	73.7
당기순이익	557	-5,569	2,583	4,423	6,536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년호.

바. 모집조직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모집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점포 수와 설계사 수의 감소추세임.
- 외환위기 이전 보험산업의 고성장과 함께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던 보험회사 점포와 설계사 수는 외환위기 이후 보험회사 퇴출, 부실 설계사 정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 9월말 현재 10년전에 비해 약 50% 감소하였음.

<표 8> 모집조직 규모 변화

(단위: 개, 명, %)

구 분		1997	2000	2003	2005	2007	증가율*
생명보험	점포수	11,379	6,570	4,809	4,418	4,606	-8.6
	설계사수	293,398	214,793	143,498	123,850	136,772	-7.3
	대리점수	11,177	6,017	7,211	10,290	10,400	-0.7
손해보험	점포수	4,465	3,001	2,507	2,486	2,530	-5.5
	설계사수	102,732	68,896	60,178	72,116	71,299	-3.6
	대리점수	51,823	53,321	48,217	45,646	42,493	-2.0

* 10년간(1997~2007)의 연평균 증가율임.

- 생명보험 설계사는 종합재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성 설계사 채용 확대, 일부 중소형사의 영업확대 등으로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모집조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설계사정착률은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FP와 같은 전문설계사의 증가와 함께 보험회사들의 선별적인 선발정책 등으로 설계사정착률이 생명보험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에 2.3배나 증가하였음.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상승 폭이 5.7%p에 불과하지만 생명보험 보다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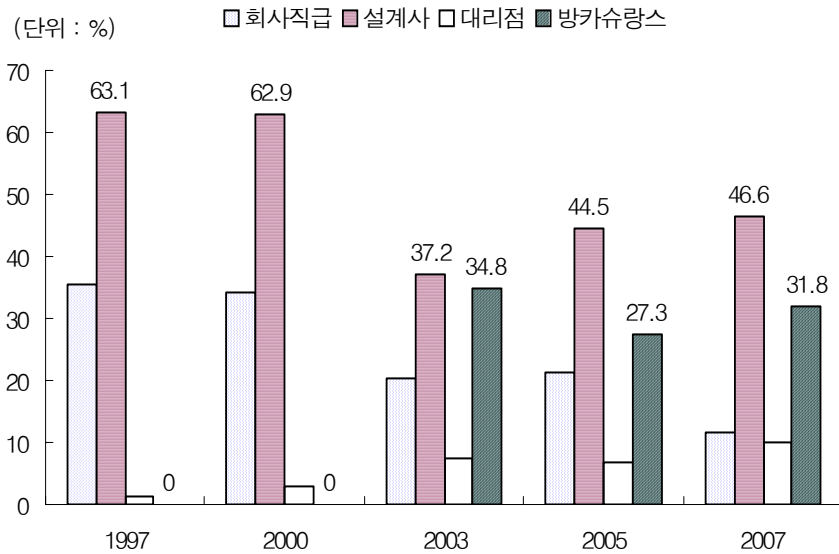
<표 9> 보험설계사 정착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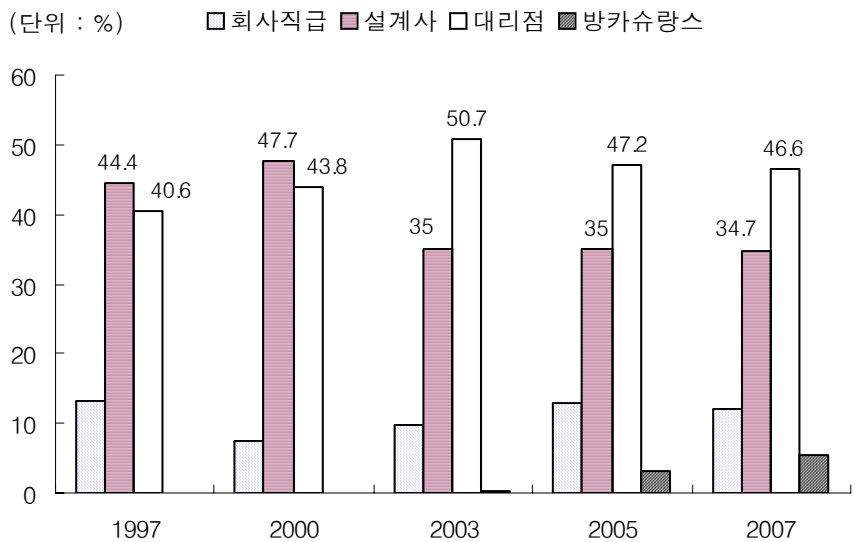
구 분	1997	2000	2003	2005	2007. 9
생명보험	18.4	22.4	31.2	36.1	42.0
손해보험	37.1	39.8	39.7	39.5	42.8

-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는 외환위기 전후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설계사와 회사직급(임직원) 위주로 초회보험료가 거수되었으나 최근 들어 그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방카슈랑스를 통한 초회보험료 비중이 30%대에 이르고 있어 방카슈랑스 효과가 생보사 기존 모집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설계사와 대리점 채널 위주의 모집조직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다만 최근 들어 대리점 비중이 설계사 비중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아직 방카슈랑스의 기존 모집채널에 대한 영향이 생명보험 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7> 외환위기 이후의 생보사 모집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그림 8> 외환위기 이후의 손보사 모집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사. 시장경쟁의 다양화

- 외환위기 이후 부실 보험회사의 퇴출과 외국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시장구도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특정상품만을 취급하는 전문보험회사도 등장하면서 보험시장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사 및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대형 생보사들의 과점시장 체제가 약화되어 경쟁적 시장형태를 보이고 있음.

<표 10>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구 분	1997	2000	2003	2005	2007. 9
대형 3사	67.2	80.9	72.0	65.9	56.3
외국사	0.3	5.7	13.6	18.3	23.5
중소형사	32.5	13.3	14.4	15.8	20.2
허핀달지수	0.1729	0.2534	0.2024	0.1739	0.1326

- 특정상품만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도 꾸준히 등장하였는데, 생명보험은 주로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 손해보험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보험회사들은 보험산업의 규제완화 추세와 함께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각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 전문 생보사 : 하나생명, SH&C 생명
- 온라인 자동차보험회사 : 교보악사,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
- 권원보험 전문 손보사 :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

아.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외환위기 이후 감독당국의 보험회사 감독정책의 큰 흐름은 규제완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감독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음.
-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도입, 지급여력제도의 개정, 리스크평가제도(RAAS) 도입 등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규제완화의 지속과 함께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재무건전성 감독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부실 보험회사의 퇴출 및 공적자금 지원 등으로 2001년 이후 동 비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11>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1999	2001	2003	2005	2006
생명보험	576.8	293.9	218.5	229.9	232.9
손해보험	74.2	195.1	280.2	294.3	281.0

- 소비자 권리의식의 확산에 따라 감독당국의 보험소비자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임.
-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제도가 강화되어 보험상품의 가격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보험시장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공시제도 강화는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정보공유 확대, 온라인 보험회사의 등장과 함께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상품내용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인식이 일치하도록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
- 향후 변액보험 등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예정임. 또한 소비자 설명의무 및 자필서명 수령의무에 대한 근거를 보험업법에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자. 보험산업 글로벌화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는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해외네트워크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 금융의 국제화진전, 아시아 금융시장의 자유화 진전에 따라 해외진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개방은 1980년대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진행되기 시작되었으며, OECD 가입과 더불어 개방이 크게 진전되면서 보험산업의 대외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졌음.
- 국내보험회사들의 해외시장진출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내시장의 수요포화의 인식이 확산되고 아시아금융시장의 부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12> 보험회사 해외진출 추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1월			
	지점	법인	사무소	계	지점	법인	사무소	계	지점	법인	사무소	계	지점	법인	사무소	계
생보	-	6	10	16	-	8	12	20	-	8	13	21	-	7	14	21
손보	7	8	21	36	6	7	20	33	7	8	20	35	7	9	21	37
합계	7	14	31	52	6	15	32	53	7	16	33	56	7	16	35	58

출처 : 금융감독원

-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보험산업이 수익성을 다변화하고 경영위험을 분산시켜 향후 보험경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CEO의 결단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요약 및 시사점

1997년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 보험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의 위상도 회복되고 있음. 향후에도 보험산업이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함께 수익성 위주의 경영기조 유지, 자산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소비자 신뢰 강화방안 등 다양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보험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였으며, 보험시장의 개방화도 더욱 촉진되었음. 또한 보험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겸업화도 추진됨으로써 보험산업의 선진화도 크게 진전되고 있음.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보험산업은 질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보험료 규모나 총자산 규모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고성장세는 아니지만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보다는 보험료 순위 및 보험침투도 등에서 순위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향후에도 세계시장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외형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및 정책분야,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험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보험산업의 경영효율성을 신계약률, 실효계약률, 손해율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자산운용수익률은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금리하락 추세와 더불어 점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 및 금리의 상승추세 전환 등에 따라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소비자들의 수익민감도 심화,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대, 금융권간의 경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외환위기 이후 우리 보험산업의 상품포트폴리오상의 가장 큰 변화는 생보의 보장성 보험 확대 및 손보의 장기보험 확대로 특징지워짐. 최근에는 생보의 변액보험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함께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고령화 진전 등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비자들의 니드는 지속될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환경 및 소비자 니드에 부응하여야 할 것임.
- 외환위기 이후 우리 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생보의 경우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전통적인 설계사 조직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손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모집조직의 절대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전문직 설계사의 채용 확대 등으로 생보산업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모집조직의 효율성 지표의 하나인 설계사정착률은 생·손보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외국사들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
- 규제완화의 지속에 따른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은 또 다른 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는 향후에도 규제완화의 지속과 함께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RBC 제도 도입 예상에 따라 보험회사 부담이 증대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향후에도 우리 보험산업은 과거의 성장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내시장의 포화에 대비하고 수익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해외진출에 진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